

【 2016.05.20(금) 강원일보 】

원주~강릉 고속철 담합 혐의 건설사 관계자 무더기 법정행

2018평창올림픽 기반시설 구축 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53)씨와 차장 박모(41)씨, 한진중공업 부장이모(4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두산중공업과 KCC 건설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4개사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에 공구를 분할 한 뒤 기준 금액을 조작해 낙찰 받은 혐의다. 신형철기자

【 2016.05.20(금) 건설경제 】

국내 수주 향후 2~3년간 하락세 가속화

“2018년 건설공사 ‘매출절벽’ 온다”

건산연, 올 수주 123兆 전망
지난해보다 20% 넘게 감소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작년보다 20% 줄어든다고 향후 2~3년간 이 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수주 감소세로 특히 2018년에는 매출절벽이 우려돼 건설사의 대비와 정부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향후 국내 건설경기 하락 가능성 진단'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건설경기 선행 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 158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호조세를 보였으나, 올해에는 작년보다 20% 이상 급감한 123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 관련기사 3면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건설투자와 건설기업의 국내 공사매출은 수주와의 시차를 감안할 때, 2017년 하반기 감소세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건설경기 선행 지표인 국내 건설수주는 현재 경기 사이클상 제2국면인 후퇴기, 동행 지표인 건설투자는 제1국면인 호황



‘5월 폭염’, 서울 84년 만에 가장 더웠다 5월 중순으로는 사상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19일 경기도 기평군·양평군·이천시·고양시·동두천시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9도였고, 이 기록은 5월 중순 기온으로는 1932년 이후 8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 지열로 인한 이기랑이가 피어올라 사람과 자동차들이 일그러져 보인다. 안윤수기자 ays77@

기를 지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선행 지표인 국내 건설수주를 따라 2017년 하반기 이후 제2국면인 후퇴기에 진입하고, 2018년 이후 제3국면인 불황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자재 출하 등 연관산업도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이 국내 건설수주 하락세

로 보인다.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 감소로 향후 5년 동안 GDP 연평균 증가율은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총 69조2000억원(연평균 13조8000억원)의 산업생산액 감소, 총 45만1000명(연평균 9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등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이 국내 건설수주 하락세가 예상되는 이유는 2015년 건설

수주 호조세를 견인했던 민간 주택 수주가 올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홍일 실장은 “건설사 리스크 관리의 물론, 민간투자 사업 및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경기의 급락을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